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회, 28일 여야 표 대결

윤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민주당 '탄핵' 거론하며 여론몰이 국민의힘 '이탈표' 단속에 주력 재표결 반란표 17표 나오면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번째다.

이날 국민의힘은 여대결 여야 합의 없는 특검 도입이 없었다는 점과 채상병 사망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부결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가결 여론몰이에 나섰다.

앞서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들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도록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에 못 미치는 180석이다.

다만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욱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낙선·낙선·불출마 의원 55명을 일일이 설득하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김용 의원을 제외



“거부권을 거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면 이탈표가 없어 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도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소여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주장을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과 관련해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해외 직구 혼선 계기... 당정관계 변화 조짐 '주목'

설익은 정책 거센 비난 일자 여당 지도부 정책주도권 강화 추경호 원내대표 "당과 협의"

수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당정 관계가 해외 직구 규제 혼선을 계기로 일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총선 대패 이후 당정관계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커졌던 상황에서 정부의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해외 직구쪽의 거센 비난에 부딪히자 여당 지도부가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굳기 잡기에 나선 듯한 모습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정부와 대통령실이 국민 여론 수렴 절차나 당과 사전 소통 없이 급작스럽게 중요 정책을 발표했다가, 비판 여론에 놀라 이를 철회 또는 축소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잃는 일이 여러 차례 거듭되자 당에서도 "참을 만큼 참았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빌드업'(build-up)과 맥락이 없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민심과 접촉면이 가장 넓은 당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직구 규제 정책 및 철회 발표 역시 당과 구체적인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여당 지도부도 폭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직구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도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앞으로 주요 민생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끄는 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당에서는 "올며 겨자 먹기" 식으로 뒷수습에 나섰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를 두고 원내 관계자는 "정책 혼선이 반복될 경우 주저하지 않고 '쓴소리'를 하겠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정 간 소통 부재, 여론 수렴과 소통 부족, 미숙한

언론 대응 등에 따른 정부의 실기가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가 느닷없이 던져놓고 수습은 여당이 주로 맡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했다. 지난 총선 참패 원인을 여기서 찾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가 역풍에 정책을 철회했다. 이듬해 주 69시간 근무제, 수능 길러 문항 폐지,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정부가 당정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당이 수습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최근 의대 정원 논란과 관련, 증원분을 '2천명'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2천명만란 숫자를 밀어붙이다 의외로 반발만 커지자 결국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후퇴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경남 산청 출신인 오 신임 공수처장은 1998년 부

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부산지법·울산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5월까지다. /오광록 기자 kroh@

34개로 분산된 정부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통합

30개가 넘는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돼온 정부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2027년 이 같은 방향으로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 작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풍수해 관리, 상황 전파 등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 개별 시스

템은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절차에 따라 재편되고 간소화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신문고 등 재난·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 역시 하나의 대국민 포털로 합쳐진다. 통합검색, 주제별 분류, 위치기반 등 다양한 정보 분류를 제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